

제27회 함춘대상

일시 & 장소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김 광 원 (金 光 源, 1972년 출)

- **주요 학력** 197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주요 경력** 1980년-1993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4년-2012년 성균관대학교-삼성서울병원 내과(내과과장, 교수, 교무부학장)
2012년-현재 가천대학교 길병원 내과(임상교수, 당뇨병센터장, 의생명융합연구원장)
학술단체 책임자(대한내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한국당뇨협회장)

• **주요 공적 요지**

1. 임상 의사

1972년 졸업한후 현재까지 54년간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느끼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놓지 못하고 진료 현장에 머물고 있는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진료가 무엇일까, 더 좋은 의사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최신 의학 정보습득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면 많은 학술집담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의 지식만으로 한계가 있어 해결될 수 없는 환자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문제들은 임상 의사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많은 여러 분야의 생명과학자들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생명과학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당뇨병 교육시스템 체계화

당뇨병 예방과 치료는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환자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활습관의 개선은 매우 어렵고, 진료현장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고 진료비의 반영이 미약해서 병원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경험도 빈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전문 간호사 양성, 교육공간 확보, 교육자료 개발등 체계적인 준비와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조식회(朝食會), 중식회(中食會), 주말 걷기행사, 일주일 입원교육, 3박4일 야외 당뇨캠프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 치료에 필수적임을 확인시키고, 우리나라 당뇨병 교육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당뇨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당뇨병의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췌도 이식(Pancreas islet transplantation) 연구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인슐린 치료로도 치료할 수 없는 당뇨병은 지금도 당뇨병치료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췌장 또는 췌도 이식이 해당입니다. 췌장이식은 외과 영역이고, 췌도 이식은 외과와 내과가 합심하여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인슐린 결핍(췌도 부족/결함)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난치성 당뇨병 환자의 치료법으로 이용되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당뇨병 환자의 근원적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여 췌도이식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식하는 아시아 최초의 동종이식(同種移植), 손상된 췌장에서 췌도만 분리해서 이식하는 자가이식(自家移植), 돼지 췌도에서 사람으로 이식하는 세계 최초의 이종이식(異種移植)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립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하였습니다. 기초의학자, 생명과학자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심하는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416편의 연구논문)

• **수상 소감**

저의 작은 노력에 이렇게 큰 영광을 안겨 주시니, 너무 큰 대접을 받지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고맙습니다. 한규섭 동창회장님, 황순재 동기회장님 그리고 동기분들 고맙습니다.

연구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사 그리고 연구자들 고맙습니다. 나를 믿고 함께한 먼저 간 아내가 그립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생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희 (朴鍾姬, 1975년 출)

- **주요 학력** 1975년 서울대학 의과대학 졸업
1982년 Scripps Clinic & Research Foundation 번역학 연구 펠로우십 수료
1984년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알러지 번역학 호홉기 임상수련의 수료
- **주요 경력** 1984년 - 1991년 시카고대학 소아과 교수
1991년 - 현재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1996년 - 1997년 Illinois Societ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회장역임
2014년 - 2022년 일리노이 고등교육위원회(IBHE) 교수자문위원회 위원
2004년 - 현재 세종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 창립 멤버 및 사무총장

• **주요 공적 요지**

1. 소아 알레르기·천식 분야의 임상 진료와 교육 발전에 기여

일리노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Pediatric Allergy, Immunology, and Pulmonology Section을 창설하고 장기간 Section Chief로 재직하며 연구, 진료, 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Illinois Societ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의료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2. 세종문화회를 통한 한국 문학과 음악의 국제적 확산

2004년 세종문화회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음악과 문학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의 전통 정형시인 시조를 영어권에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시조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시조의 국제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World Sijo Poetry Day(세계 시조의 날)”를 제정·운영하여 시조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조의 세계화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다. 아울러 영어권 시조 창작 및 교육을 위한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을 2022년에 출간하였으며, 동 저서는 2023년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부터 Franklin R. Buchanan Prize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수상 소감**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으로서 이처럼 영예롭고 뜻깊은 함춘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게는 분에 넘치는 상이라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송구한 마음이 앞서지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규섭 동창회 회장님과 남명호 미주동창회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로서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훌륭한 가르침으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도 삼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춘대상연혁

함춘대상 제정 취지

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회원 중에서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의료계와 의학회 및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을 현창한다는 취지로 제정함.

함춘대상 후보자 자격

-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과 명예 선양에 기여한 자
- ② 국민보건 의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 ④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여 제도 발전, 발전기금 출연 등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

함춘대상 후보자 추천

- ① 본회 각 동기회장, 지회장(지역지회, 의과대학지회, 종합병원지회) 및 미주동창회장
- ② 역대 수상자
- ③ 본회 상임 임원회

함춘대상 심사 및 시상

- ① 심사위원회 : 동창회 회장, 명예회장, 모교 학장, 모교 병원장과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② 수상자시상 : 매년 3월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함.

제 27회 함춘대상 시상내역(2026년도)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함.



안 병 문 (安 秉 文, 1976년 출)

- **주요 학력** 197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2년 의학박사 학위 취득
2013년 영국 국제인명센터 (IBC) 명예문학박사
- **주요 경력** 1993년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의무원장
2010년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2011년 디지털병원 포럼 초대 의장
2015년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주요 공적 요지

1. 의료계 활동

- 1993년 뉴성민병원을 개원한 이래 정형외과의사로서 뉴성민병원을 정형외과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키며 수부의학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하였음.
-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으로 2007년 세계병원학회 (World Hospital Congress) 를 한국에 유치하였으며, 2013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대회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발표하였음.
-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으로 개발도상 17개국 의료지도자 국내연수교육을 주관하였으며, 2011년 한국형병원수출을 위한 디지털병원포럼 초대의장으로서 K-의료의 해외 홍보, 수출에 기여하는 한편, 2012년 한국의료대표단의 단장으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여 한-사우디 의료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1993년 개원이래 수십년간 인천지역 장애인 및 영세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2015년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6000여명에 달하는 범죄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였음. (전국 최다 기록)
- 2022년 코비드19 국가비상사국에 400병상 전체를 내놓아 코로나치료를 전담하였음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수상)

3. 동창회 활동

- 본회의 부회장, 감사 직을 역임함과 동시에 본회 인천광역시 지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2024년 성세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 수상 소감

저는 1976년 모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모교를 졸업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날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교의 초대교수를 지내신 조부님과 모교를 졸업하신 선친의 뒤를 이어, 저는 모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재학시에는 전혀 몰랐지만 졸업 후의 세상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학병원의 기틀을 마련하다가 작고하신 선친의 뒤를 밟아 무작정 시작한 종합병원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으로 많은 고난을 만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병원 운영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병원운영에 바빠서 집에도 잘 가지 못하고 쟁겨주지도 못했는데, 잘 성장해준 두 딸들, 모교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내과교수를 지낸 큰 딸 안경민교수와 의연히 자기길을 홀로 개척하고 있는 작은 딸 하영배우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자라고 용기 없는 저를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내자 이미숙 교수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취미가 없었던 저를 항상 도와주고 정답게 대해주고 있는 졸업30회 동기 여러분들과 진흥용 동기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러한 영예스러운 상을 수상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